

축 사

완도군의회 의장 허 중 희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완도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를 완도군의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도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연합회를 이끌어나가고 계시는 서 정 창 연합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스런 표창을 수상하신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모든 인류가 고통 받고 있으며 저성장 장기화와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께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상공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지역경제는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 주셔야 완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완도군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고 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유익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완도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토론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일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